

아시아·환태평양지역 美 항공장비 수출 急增

尹錫駿 / 大韓航空 한국항공기술연구소
항공공학박사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전세계 시장에서 1989년에 약 16조원의 무역수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88년의 약 13조원보다 24%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반면에 미국 항공우주분야의 수입은 1989년에 약 7조2천억원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는 1988년의 약 6조6천억원에서 겨우 10% 증가한 것이다. 군수용 항공우주 상품의 경우 1989년 수입은 1988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美 항공산업협회(AIA) 산하 항공연구소(워싱턴 所在)의 최신 보고서는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항공우주 수출이 1980년 이래 1백36%나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 항공우주 생산업체들이 1989년 한해에만 이 지역에 약 6조6천억원의 장비를 수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989년에 미국은 환태평양 지역에 미국 항공우주 총 매출의 8%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미국 항공우주 총 수출의 28%에 해당한다.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은 호주, 브루나이,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를 포함하고 있다.

AIA 산하 항공우주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베이다스(David Vadas)씨에 따르면, 이 지역은 미국 항공우주 생산업체들의 주요 항공우주 수출시장으로, 계속해서 항공우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 한다.

그는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은 제한된 성장을 하지만,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항공우주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 지역의 13개 국가들이 항공기 생산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헬기와 훈련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이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대만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항공우주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은 IDF라 불리는 전투기를 자체생산하면서 시장개척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은 KFP의 합작생산 경험을 살려 항공우주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극음속(極音速) 비행체용 추진기관 연구개발을 겨냥하여 主 국제 콘소시엄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AIA는 중국, 인도와 일본은 국가적 차원의 우주계획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고유의 발사능력 향상과 다양한 종류의 인공위성 제작설계와 지상 지지시설의 개선과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은 자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호협조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항공우주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AIA의 경제학자인 베이다스씨는 지적하고 있다.

1989년에 미국은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보다 영국으로부터 3배의 항공우주 상품을 수입하였다. 1988년의 경우 항공우주 시장에서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중 오직 일본만이 4개 업체가 서방세계 매출 상위 50위 안에 들었을 뿐이다. 일본 회사중 판매고 최고인 회사는 16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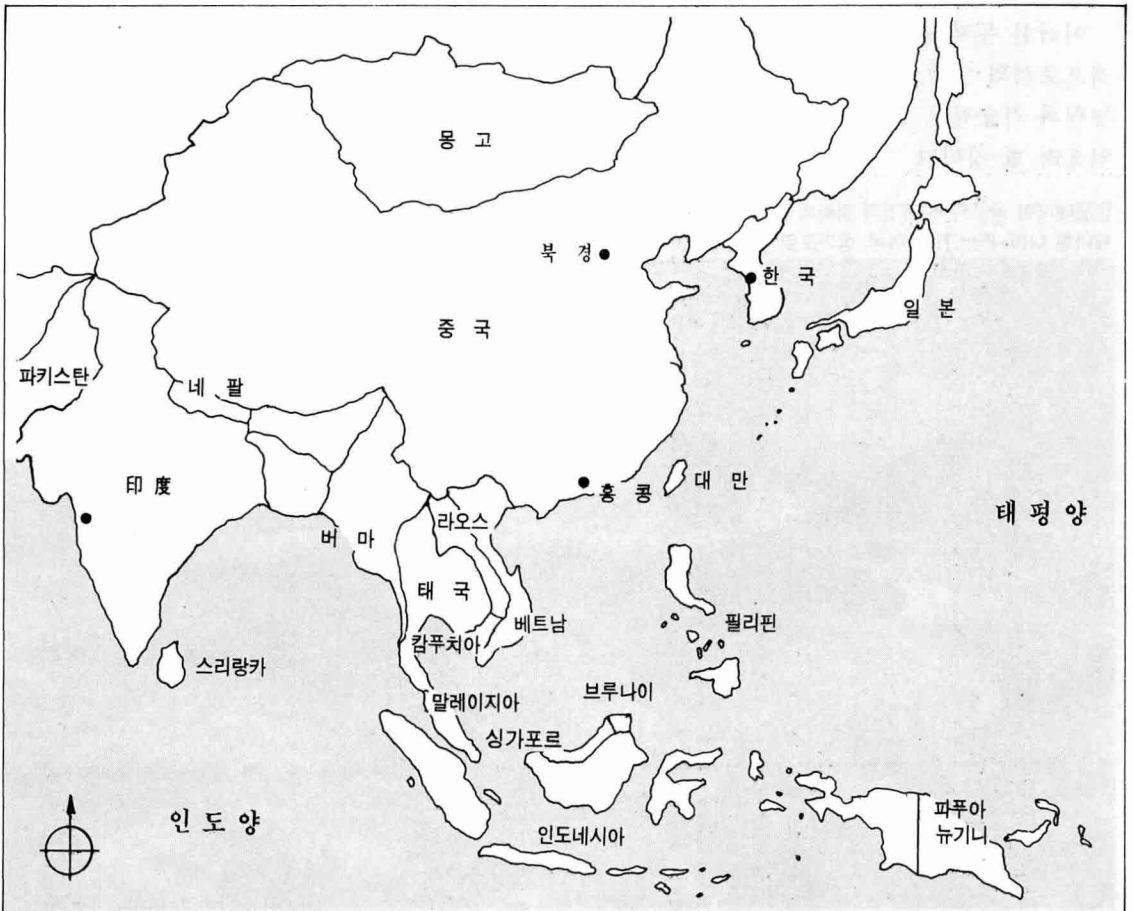
1989년의 경우 무역 흑자가 약 6조원에 달하는등 실질적으로 미국의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에서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왔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시장보다 아시아—환태평양 시장이 더 많은 이익을 미국에 가져다주어 왔다.

경제성장은 항공우주교역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AIA는 지적하고 있다. AIA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이 1985년과 1989년 사이에 평균 3.4%의 GNP 성장율을 기록하는 동안 일본은 평균 4.5%를 유지하는등 선진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소위 신흥 선진국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하여 왔으며, 이들 4개 국가들은 1985년 이후 평균 8.9%의 GNP 성장율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되며,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IA 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방비는 항공우주 발전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시아—환태평양지역은 계속 국방비를 증액하여 왔다. 1982년과 1987년 사이에 이 지역 전체의 국방비는 평균 6%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장율은 北美를 제외한 자유세계의 어떤 지역보다 높은 것이다.

최근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지아, 싱가포르와 태국은 모두 자체 공군력을 분야별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서방측 방위시장이 축소된다고 볼때 환태평양 국가들이 시장 일부를 제공하게 되겠지만,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짓고 있다.

AIA의 아시아—환태평양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이들 국가들은 항공우주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들 국가들은 고객으로서의 잇점을 십분 활용하여 더 큰 생산 능력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합작생산을 통해 얻으려 할 것이다.

외국에서 방위장비를 수입할때 구매국가들은 그들의 기술적인 요구와 판매자들의 기술 제공 정도에 따라 구입선을 선택할 것이며, 자금대여와 함께 제공되는 오프셋 패키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AIA의 베이다스씨는 말하고 있다.

AIA 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서구유럽국가들은 금년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항공우주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는등 이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과 서독의 다이플러—벤츠사와의 항공우주 분야를 포함한 최근의 광범위한 협조 동의 또한 이러한 경향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베이다스씨에 따르면 우방국가들이 보다 큰 경쟁력을 키우리라는 우려보다는 잘 무장된 우방을 갖고 미국산업의 수출확보에서 얻는 이익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다.

AI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보안이 보다 중요시 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경제문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F-16기가 자바의 後背地 위를 비행하는 모습
제너럴 다이내믹스社は 태국,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였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노스롭 F-5E 요격기가
말레이시아의 북부 공군기지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우방 공군들은 F-5E를 보유하고 있는데
F-5E를 개선하고 있거나 최신에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다. 직물, 철강과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의 선진산업들이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커지게 되었다.

일본의 FSX(미국의 공동생산과 합작을 요구한다)와 한국의 KFP(미국의 공동생산을 포함한다), 이 2개의 항공우주계획들이 이러한 관심을 부채질하였다.

불행하게도 이 2가지 협정들이 태평양 양쪽 국가들에 많은 반론을 야기시켰는데, 이 점 때문에 아시아—환태평양에 있는 미래의 고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구입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베이다스씨는 말하고 있다.

몇몇 선택된 상품중에서 선진기술이 미국회사들에게 경쟁력을 갖게 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러한 선진기술의 수출을 때때로 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회사들은 우수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기회를 자주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외국의 회사들이 항공우주 수출에 유리해진다』고 그는 덧붙인다.

미국은 사려깊은 수출정책이 당연히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시장은 더 빠르게 앞서간다.

만약 미국 회사가 자국내의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쳐 해외에서 주어진 기회에



호주 공군의 F/A-18 호넷 전투/공격기
호주는 57대의 단좌 AF-18A와 18대의 복좌 ATF-18A 등
총 75대의 F/A-18기를 획득하였다.
호주 항공우주기술사(ASTA)에 의해 호주내에서 제작되었다

늦게 반응할 경우, 해외의 경쟁국가들에 우위를 빼앗길 것이다.

미국의 미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새 법안의 구상에는 현재의 판매실적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산업이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경쟁력을 갖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매가 지속적인 시장확보와 기술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가져온다고 베이다스씨는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환태평양 국가들은 미국 항공우주회사들의 확실한 수출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누리던 매출과 수출의 현저한 증대가 앞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미국의 항공우주산업은 전세계 시장에서 1989년에 약 16조원의 무역수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88년의 약 13조원 보다 24%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무기수출은 이 기간에 감소하였다. 항공우주분야의 무역수지가 미국의 총수출에서 5년 연속 최고를 차지하고 있음을 AIA의 연구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반면에 미국 항공우주분야의 수입은 1989년에 약 7조2천억원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는 1988년의 약 6조6천억원에서 겨우 10% 증가한 것이다. 군수용 항공우주 상품의 경우 1989년 수입은 1988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

〈A. D. J 90/9〉